

세계도시

2006. 8. 21

제149호 창의서울 특집

동향

목 차

거버넌스

1. 건강한 학교 조성을 위한 교육 거버넌스 구축 합의 (베를린)
2.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지침서 작성 (스코틀랜드)
3. 도심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 (베를린)
4. 새로운 에너지 프로그램에 시민제안 반영 (베를린)
5. 행정개혁추진위원 중 3명을 시민 중에서 공모 (일본 미나미보소市)
6. 외국인을 시민위원으로 모집 (동경都 하치오지市)
7. 주차 위반 범칙금에 대한 의견 수렴 (런던)
8. NPO·행정 의견 교류회 개최 (오사카府)
9. 지방정부 의원과 직원 간 분쟁 중재팀 운영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州)

업무프로세스·시정서비스

10. 인터넷을 통해 등기수속 시 수수료 반액 인하 추진 (일본)
11. 홈페이지 내용을 읽어주는 음성지원 서비스 도입 (영국 글로스터셔州)
12. IT 기술에 기반을 둔 업무 시스템 운영으로 업무 효율 증대 (영국 피터버러市)
13. 온라인 도시계획 기준 강화 (영국)
14. 부모가 인터넷으로 자녀가 입학할 학교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파리)
15. 시장화(市場化) 테스트 모델 사업 실시를 위해 의견 모집 (동경)
16. 市 신문출판국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해 시민도서관 300개 설치 예정 (북경)

성과관리·예산

17. 정부혁신 사업평가 결과 발표 (영국)
18. 도립(都立)병원 직원 4000명 감축 계획 (동경)

도시마케팅

19. 공공전화번호부에 런던 여행정보 수록 (런던)
20. 월드도시 비전과 마케팅을 위한 도심 전체 마스터플랜 준비 (영국 버밍엄市)
21. 세계적인 광장의 이벤트 마케팅 (런던)

22. '低세금, 高효율' 강조한 투자 유치 전략 (호주 퀸즐랜드州)
23. 현수막 설치권 판매로 재정수입 증대와 도시 분위기 일신 (시드니)
24. 오사카-상해 비즈니스 라인 홈페이지 개설 (오사카府)
25. 상해시를 많은 외국영화 촬영지로 유치 (상해)

거버넌스

1. 건강한 학교 조성을 위한 교육 거버넌스 구축 합의 (베를린)

'건강한 생활 조성'은 베를린市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교육목표 중 하나다. 베텔스만 재단의 후원과 많은 의료보험사 및 사고보험사의 지원으로 교육행정청이 지금까지 베를린 소재의 많은 학교와 탁아소에서 일련의 프로젝트들을 시작했고, 중독예방 프로그램(술, 담배, 마약 등)과 같은 건강 및 운동교육을 다루고 있다고 베를린市 교육·청소년 및 체육부가 밝혔다.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start-up', '교실 2000', '무기농 빵 박스', '네트워크 학교 급식'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市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 '좋고 건강한 학교'를 보완한다. 이를 위해 교육관청, 베텔스만 재단, 10개 의료보험회사, 사고보험사는 최근 교육 거버넌스의 범위를 합의했다.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6/07/24/44614/index.html)

2.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지침서 작성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정부는 도시계획 과정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열린 도시계획'의 내용을 담은 PAN(Planning Advice Note)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현재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 있다. 어떻게 하면 개발계획에서 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한 이 보고서는, 도시개발 계획과 실행 프로그램에 대해 6주 동안 시민참여와 컨설팅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새로운 도시계획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중심의 도시개발을 하고 개발과정에서의 반대를 막는 민주적 도시계획을 강조하고 있다.

(Planning, 2006. 7. 18)

3. 도심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 (베를린)

베를린市 중심에 새로운 녹지공간이 탄생한다. 총 면적 32만m²에 들어서게 될 녹지공간은 글라이스드라이에크에 있는 옛 철도부지인데, 적극적인 시민참여가 돋보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시민참여의 첫 번째 단계는 2005년에 설계공모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원 조성과 관련된 시민의 아이디어와 제안을 모집하면서 시작됐다. 설문조사, 워크숍, 공원부지에서의 공동 산책 및 인터넷 참여를 통해 수집된 시민 의견은 공원조성 공모전에 반영됐다. 두 번째 단계의 시민참여로, 2006년 4월 말부터 시민들은 1차 공모전에서 선정된 11개의 설계 작품을 건축가와의 대화 및 토론을 통해 발전시켜 나갔다. 2006년 8월 26일 공식적인 공사가 시작되는데 이 날 공원조성을 축하하는 시민 축제도 열릴 예정이다. 공원조성 공사 과정에도 시민참여가 지속되기 위해 향후 '계획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다.

글라이스드라이에크에 조성되는 공원은 2011년에 완공되며 예산으로 총 1160만 유로(약 139억 원)가 책정됐다.

(www.meinberlin.de/nachrichten_und_aktuelles/33437.html), (www.gleisdreieck-dialog.de)

4. 새로운 에너지 프로그램에 시민제안 반영 (베를린)

2006년 7월 18일 베를린市 의회는 Ingeborg JungeReyer 도시개발부 장관의 '2006~2010년을 위한 베를린 에너지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해당 부처의 환경 및 에너지 정책 강조점 중의 하나는 에너지와 비용을 아끼면서 대기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 프로그램은 장기간의 효과가 있는 에너지교육 실시와 에너지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대기 보호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5년 12월 도시개발부가 이 프로그램의 초안을 발표한 후 환경보호단체와 경제단체에 속한 관심 있는 시민으로부터 받은 많은 제안이 프로그램에 반영됐다. 지금까지 많은 단체와 시민은 에너지 프로그램의 변경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市의 에너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이미 대기보호 협력을 위한 공동제안이 체결됐다.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607/nachricht2348.html)

5. 행정개혁추진위원 중 3명을 시민 중에서 공모 (일본 미나미보소市)

일본 미나미보소市는 2006년 9월에 발족하는 행정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중 3명을 시민 중에서 공모한다. 이 위원회는 학식이 있는 사람이나 의원 등 16명 이내로 구성되고, 행정개혁 추진에 대해 월 1회 조사·심의한다. 2007년 2월까지 행정개혁과 실시계획에 해당하는 집중개혁 플랜을 정리할 예정이다. 응모자격은 관할권 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며 市 행정개혁에 관심 있는 20세 이상 시민으로, 임기는 2010년 6월까지다.

(www.yomiuri.co.jp/e-japan/chiba/news005.htm)

6. 외국인을 시민위원으로 모집 (동경都 하치오지市)

동경都 하치오지(八王子)市는 하치오지를 외국인도 살기 편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외국인 시민회의'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 시민회의에서는 '외국인 생활지원: 자녀 교육을 중심으로'라는 테마로 의견을 듣게 된다. 市는 시민회의에 참가할 시민위원을 외국인 중 18세 이상 市 거주자, 市 통근자, 재학생 중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www.city.hachioji.tokyo.jp/shiminkatsudo/gakuen/shiminkaigi.htm)

7. 주차 위반 범칙금에 대한 의견 수렴 (런던)

런던市와 런던교통공사가 2006년 8월부터 10월까지 시내 주차관련 규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수정, 2007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런던 시민이나 관계자는 불법주차 범칙금, 버스 전용차선 문제, 불법주차 유형별로 세분화된 범칙금 및 벌점 부과방안에 대해 전자우편이나

전화, 홈페이지(www.alg.gov.uk/parkingconsultation)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Metro, 2006. 7. 26)

8. NPO와 행정간 의견 교류회 개최 (오사카府)

오사카(大阪)府는 2004년 4월에 '오사카府-NPO 협력추진 계획'을 수립해 NPO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6년 7월부터는 정책입안 단계부터 상호 협력하기 위해 'NPO-행정 의견 교류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교류회는 지역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NPO와 오사카府 담당자가 테마별로 의견교류를 한다. 이는 공공 과제나 해결방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NPO가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NPO와의 협력 추진', '자동차 환경 대책 추진', '어린이 안전·안심 마을 만들기'라는 3개 테마에 관한 의견 교류회가 진행되고 있다. 논의 내용은 각 교류회가 끝나고 일주일 후에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방청도 가능하다.

(www.pref.osaka.jp/fumin/html/10211.html)

9. 지방정부 의원과 직원 간 분쟁 중재팀 운영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州)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州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정부 직원간의 분쟁에 관해 화해, 협상, 중재 기능을 하는 '의원·직원간 분쟁 중재팀'(The Peer Support Team)을 운영하고 있다. 이 팀은 단체로 의원이나 고위공직자 등 분쟁 관련자를 면담해 자유롭게 모든 의견을 개진토록 한 후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모든 면담 및 회의는 대외비로 운영되고 보고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는다. 분쟁 중재팀은 전문중재 교육을 받은 지방정부의 전·현직 고위공무원과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뢰도가 높다.

(www.dlgrd.wa.gov.au)

업무프로세스·시정서비스

10. 인터넷을 통해 등기수속 시 수수료 반액 인하 추진 (일본)

일본 정부는 2007년도 실시를 목표로 인터넷을 통한 등기수속 이용 촉진을 위해 수수료 반액 인하 검토에 들어갔다. 2010년까지 행정수속 인터넷 이용률 5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 행정수속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등기관 관련 수속의 인터넷 이용률 향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등기업무 온라인 수속에는 부동산, 상업·법인 등기정보 확인(1건당 약 6000원), 등기사항 증명서 송부 신청(1건당 약 8300원) 등이 있으며 현재 온라인 이용률은 약 12% 정도다. 다만 등기업무는 수수료 수입에 의존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수수료를 반액으로 인하하면 2009년에 약 200억 엔(약 166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선, 수속의 간략화 등 이용률을 향상시키는 정책에 맞춰 등기소 직원 수 감축 등 운영비 절감도 실시할 계획이다.

11. 홈페이지 내용을 읽어주는 음성지원 서비스 도입 (영국 글로스터셔주)

영국 글로스터셔(Gloucestershire)주 기초자치단체들이 공공기관 홈페이지 방문자에게 홈페이지 내용을 읽어주고 주요내용은 큰 소리로 다시 읽어주기도 하는 음성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 2005년 전자정부 관련 행사에서 음성서비스를 처음 접한 자치단체 담당자들은 기존 홈페이지 체제와 호환성이 뛰어나고 추가 비용이 없는 서비스를 채택하면서 향후 난독증이나 시력 장애를 가진 사람이 좀더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ww.publictechnology.net/modules.php?op=modload&name=News&file=article&sid=5502)

12. IT 기술에 기반을 둔 업무 시스템 운영으로 업무 효율 증대 (영국 피터버러市)

영국 케임브리지셔주 피터버러(Peterborough)市는 市가 고용한 주택 수리·관리 기술자에게 PDA를 지급한 후 라디오 링크를 이용해 업무를 지시하고 진척 사항을 보고하도록 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리 업무를 완료함으로써 업무 생산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소비자 만족도도 증가하는 등 호평을 받았다. 이 사례는 업무 효율성 증가에 기여한 영국 10대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www.publictechnology.net/modules.php?op=modload&name=News&file=article&sid=5512)

13. 온라인 도시계획 기준 강화 (영국)

영국정부는 최근 온라인 도시계획 서비스 기준을 강화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도시계획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을 토대로 운영됐는데 여기에 정부의 강화된 기준이 추가됐다. 강화된 기준은 온라인 도시계획의 질적인 면을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만족도 내용을 포함한다. 이를 고무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보차원의 온라인 도시계획 시설과 서비스를 잘 운영하고 정부의 강화된 지침을 지키는 지방정부에는 상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Planning, 2006. 7. 25)

14. 부모가 인터넷으로 자녀가 입학할 학교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파리)

파리市는, 학부모가 직접 자녀가 입학할 학교를 찾아주는 인터넷 시스템을 최근 구축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현재 살고 있는 주소만 입력하면 자녀가 갈 수 있는 지역 학교를 알 수 있다. 학교가 여러 군데인 경우 학생 수가 여유 있는 학교면 자유롭게 선택해 입학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일손을 줄이고 투명한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15. 시장화(市場化) 테스트 모델 사업 실시를 위해 의견 모집 (동경)

동경도가 7월 13일에 발표한 '행·재정 개혁 실행 프로그램'에 근거해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비용 삭감을 추진하고자 시장화(市場化) 테스트를 도입한 관민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2006년에는 모델사업으로 도립(都立) 기술전문학교의 관민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2007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관민 경쟁입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도립 기술전문학교의 관민 경쟁입찰이 가능한 업무를 파악하고 민간 개방이 가능한 조건 등에 대해 민간 사업자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동경도가 시장화 테스트를 도입하려는 배경은, 2006년 7월부터 실시된 '경쟁 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혁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 업무 중 적용 대상이 주민등록표 교부 등 창구업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초월한 효과적인 관민 입찰제도를 도입하려는 데 있다.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6/07/20g7p200.htm)

16. 市 신문출판국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해 시민도서관 300개 설치 예정 (북경)

북경시가 2006년 하반기에 시민도서관 300개를 건설하고 그 중 240개는 시외곽 농촌지역에 설치할 예정이다. 市 신문출판국은 시민도서관이 연말에 500개를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 말에 시작된 '독서익민(读书益民) 프로젝트'는 5년간 지속되는 사업으로 市 위원회 선전부와 市 신문출판국이 정부지원금 2000만 위안(약 25억 원)을 받아 市 외곽지역의 산간과 농촌지역, 학교, 도시 하층 노동자 집단촌 지역에 1000개의 시민도서관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량청린 신문출판국 부국장은 2006년 6월 말까지 市 전역에 221개의 시민도서관을 설치해 도시의 소외된 시민에게 다가서는 시정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www.bjgov.gov.cn/zw/zwx/t645191.htm)

성과관리 · 예산

17. 정부혁신 사업평가 결과 발표 (영국)

영국 감사원이 런던정경대학(LSE)에 의뢰해 조사한 정부혁신 사업평가 보고서를 보면, 공공기관 혁신은 예산 절감 효과 등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으나 민간기업에 비해 느린 집행 속도(평균 28개월 소요)와 중하위 공무원 조직에서 위험 회피(복지부동) 경향 지속 등이 드러나 좀더 근본적인 혁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혀졌다. 평가 대상은 총 85개 정부기관에서 평가를 위해 선정한

125대 혁신 사업으로 성과관리 개선, IT 및 인터넷 서비스와 같은 신기술 도입 중심으로 평가됐다. 대표적으로 환경청이 전자 역경매 시스템을 도입해 140만 파운드(약 25억 원) 예산을 절감했다.

(www.publictechnology.net/modules.php?op=modload&name=News&file=article&sid=5549)

18. 도립(都立)병원 직원 4000명 감축 계획 (동경)

동경도가 도립(都立)병원의 지방 독립법인화 및 직원 수 4000명 감축 계획을 포함하는 재무행정 개혁 실행 프로그램을 2006년 7월 13일에 발표했다. 2006년부터 3년간 212항목에 대해 행정 슬림화를 목표로 한다. 도립병원의 노인의료센터와 인근 노인종합연구소를 통합하고, 도내 11개 도립병원을 지방독립행정 법인화할 계획이다. 공영기업은 직영부문을 축소하고 상하수도 요금 징수사업 등을 감리단체나 민간사업자에 위탁한다. 감리단체는 도립 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 운영한다. 감리단체 파견 직원도 770명 감축해 재정지출을 120억 엔(약 996억 원) 줄인다.

(job.yomiuri.co.jp/news/jo_ne_06071410.cfm)

도시 마케팅

19. 공중전화번호부에 런던 여행정보 수록 (런던)

런던교통공사(TfL: Transport for London)가 세계적인 전화번호 디렉토리 제공 회사인 Yell과 파트너십을 맺고 런던 도심용 공중전화번호부에 8장 분량의 런던 여행정보를 실기로 했다. 이 공중전화번호부에는 도심 혼잡통행료, 선불 교통카드인 Oyster Card, 장애인 및 노약자용 콜 버스(Dial-a-Ride), 자전거 운행, 대중교통 수단 등에 관한 정보와 시내 지도가 수록되어 2006년 7월부터 도심 거주자에게 무료로 배포됐다.

(www.tfl.gov.uk/tfl/press-centre/press-releases/press-releases-content.asp?prID=848)

20. 월드도시 비전과 마케팅을 위한 도심 전체 마스터플랜 준비 (영국 버밍엄市)

영국 리버풀의 존 무어 대학은 지난 10년 동안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버밍엄市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10년 전략 지침과 마스터플랜을 준비하며 세계 여러 도시와 버밍엄市의 경제적 여건을 조사하고 있다. 市 관계자는 도시 전체를 위한 마스터플랜은 영국에서 처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버밍엄市의 두 번째 부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마스터플랜은 2006년 가을 市에 제출될 예정이며 2007년에는 향후 10년 동안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계획이 완성될 예정이다.

(Planning, 2006. 7. 19)

21. 세계적인 광장의 이벤트 마케팅 (런던)

런던市는 런던중심의 세계적인 광장에서 2006년 8월 3일부터 매주 목~일요일에 '2006 트라팔가 광장 축제'를 열었다. 2005년처럼 광장을 중심으로 열린 음악공연, 댄스, 무용, 콘서트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런던시민과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이 축제는 런던의 문화적 다양성과 역동성, 다양한 인종을 공존하는 이미지를 전 세계의 관광객에게 홍보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 축제에서 트라팔가 광장이 세계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www.london.gov.uk/trafalgarsquare/tsf/index.jsp)

22. '低세금, 高효율' 강조한 투자 유치 전략 (호주 퀸즐랜드州)

호주 퀸즐랜드 州정부는 퀸즐랜드州의 低세금, 低비용, 高효율을 강조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다른 州의 사업체를 상대로 유치 전략을 펴고 있다. 또한 브리즈번은 활기차고 세련된 도시며 살기 좋고 사업을 운영하기에 좋은 도시라고 광고하고 있다. 특히 뉴사우스웨일스州 소재 사업체를 상대로 공격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유치에 나서고 있다. 퀸즐랜드州는 뉴사우스웨일스州가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시드니市에 거주하는 시민은 비싼 생활비 및 주거비를 지출하는데도 퀸즐랜드州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뉴사우스웨일스州 소재 기업이 퀸즐랜드州로 이전할 것을 부추기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州는 현재 州 소재 기업을 유지할 목적으로 예산을 지출할 계획은 없다며 퀸즐랜드州가 뉴사우스웨일스州 기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 과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www.qld.gov.au/business_and_industry/business_development/index.html)

23. 현수막 설치권 판매로 재정수입 증대와 도시 분위기 일신 (시드니)

시드니市 곳곳에는 각종 현수막이 연중 설치돼 있다. 시드니市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현수막을 민간이 설치하게 함으로써 재정수입도 올리고 세계적인 이벤트 도시로서의 분위기도 살리고자 했기 때문이다. 현수막 설치 가능 장소, 가격, 규격, 종류, 색상 등은 지침으로 상세히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www.cityofsydney.nsw.gov.au/banners)

24. 오사카-상해 비즈니스 라인 홈페이지 개설 (오사카府)

오사카府는 2006년 7월 31일부터 오사카와 상해의 비즈니스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오사카-상해 비즈니스 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2005년 9월에 작성된 '오사카府-오사카市-상해市의 경제교류에 관한 협의서'에 근거해 기업간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관(官)과 경제계가 일체가 되어 운영협의회도 설립해 오사카 지역 기업의 판로 확대와 사업제휴, 상해 기업의 오사카 진출 촉진을 도모하게 된다. 오사카府는 홈페이지에서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검색뿐 아니라 구체적인 비즈니스 수요를 가진 오사카 지역 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해 협력 가능성이 높은 상해 지역 기업과 연결시켜 주며, 화상 협상이나 정보교환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www.pref.osaka.jp/fumin/html/10325.html)

25. 상해市를 많은 외국영화 촬영지로 유치 (상해)

최근 국제도시로 발전한 상해市가 많은 해외 영화 제작사의 촬영을 유치하고 있다. '미션임파서블 3' 외에도, 중·영 합작영화인 '백작부인', 중·미 합작영화인 'Shanghai Red'(上海紅美麗), 헐리우드 스타들이 대거 등장하는 '베일'(面紗) 등이 모두 상해市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영화들을 통해 외국인에게 상해市에 대해 강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상해市의 이미지는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내부 지적도 있다.

(해방일보, 2006. 7. 23)